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환경선교주일 아침을 맞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안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귀하게 창조해주시며 맡기신 세상을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라 명하신 피조물들을 지배하며 착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천국을 잃어 버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기심과 탐욕으로 물든 맘을 푸르른 생명 나무의 잎사귀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희생을 통해 새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전6:19-20 .....	인도자
♠ 교 독 문 .....	40.이사야 58장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한지혜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 .....	다함께
성경봉독 .....	I. 왕하4:38-44 .....	인도자
	II. 요6:50-59 .....	김중수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밥은 이미 기적이다 .....	김기석 목사
	II. 세상을 살리는 생명밥상 .....	양재성 목사
서 약 식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284. 주 예수 해변서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귀하게 간직하십시오. 주가 보이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육과 영이 굶주린 이들을 찾아가 밥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매순간 밥을 먹을 때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환경선교주일 영상물 시청	에베소서 강해(39)
공존을 위한 선택, 내셔널 트러스트	인도 : 김기석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장현애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박시내 집사

<b>6월</b>	영접위원	한상익	김근중	김용길	구명자	최숙화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김용진	윤주원	김애경	박혜경	문인옥

## 시방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환경선교대회를 하는 뜻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자만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고 보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창조의 힘인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23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갈5:22-23)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모두 아홉 가지인데 후대에 말씀들을 절로 나누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비롯한 7가지 열매를 22절에 모아 써넣고 절을 바꾸어 23절에는 ‘온유 그리고 절제’를 따로 써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의 성령의 7가지 은사는 사랑을 비롯하여 진실까지 참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좋은 덕목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온유 그리고 절제’는 좀 소극적인 덕목이지만 앞의 7가지 은사가 온유와 절제의 세계를 받지 않는다면 완전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온유와 절제’의 세계를 받아야 하는 까닭을 조금 풀어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온유(溫柔)’는 말 그대로라면 ‘따뜻하고 부드러움’이고 ‘온화하고 유순함’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과 표정이 항상 부드럽고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두 손을 공손히 모으는 자세를 말합니까?

물론 외형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온유의 본뜻은 ‘흠’입니다. 흠(땅)은 본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흠은 본디 아니 것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흠은 본디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고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흠이 받아들인 것이 생명리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껏 뛰어 놀며 살게 하고 받아들인 것이

숨 끊어진 시체나 쓰레기라면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함께 과감하게 폭 폭 썩혀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온 모든 생명들이 흙으로 만들어져 흙을 밟고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흙 위에서 생명을 키우며 살다가 죽어버리면, 쓸모 없게 되면 쓰레기가 되어 흙에 버립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도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살다가 마침내 죽으면 쓰레기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이 모든 쓰레기들을 받아들여 조용히 썩히고 변화시켜 새로운 흙으로 재창조합니다.

기름진 땅을 뜻하는 ‘humus(부식토腐植土)’라는 말은 이렇듯 흙에 떨어진 식물성, 동물성 쓰레기가 철저하게 썩혀져서 다시 기름진 흙이 된 것을 말하는데 ‘온유·겸손’이라는 말도 이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5:5)라는 주님의 말씀도 온유한 사람이 땅문서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흙과 같은 사람’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절제(節制)는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삶입니다. “딱 알맞게 쓴다”는 말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으뜸은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주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와서 사랑을 비롯하여 모든 은사가 은사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제의 은사입니다. 노자(老子) 말씀하시기를 “치인사천 막약색(治人事天 莫若嗇)—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있어서 있어도 쓰지 않는 것만 같은 게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있는가?” 열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중략)

이 땅이 신음하고 있고 땅 위의 생명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시방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글은 제1회 감리교 환경선교대회에서 행한 민들레교회 최완택 목사의 설교 가운데 일부를 옮겨온 것입니다.)

## 초승달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그곳 시인들과 저녁을 먹고  
보리수 곁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손이 내 어깨를 감싸쥐었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몸을 돌려준 방향으로 하늘을 보니  
산맥 위에 초승달이 떠 있었다  
달 저편에 내가 두고 온 세계가 환히 보였다

그후로 초승달을 볼 때마다  
어깨에 가만히 와 얹히는 손 있다

저 맑고 여윈 빛을 보라고  
달 저편에서 말을 건네는 손  
다시 잡을 수 없음으로 아직 따뜻한 손

굽은 손등 말고는 제 몸을 보여주지 않는 초승달처럼  
(나희덕)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환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초승달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그곳 시인들과 저녁을 먹고  
보리수 곁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손이 내 어깨를 감싸쥐었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몸을 돌려준 방향으로 하늘을 보니  
산맥 위에 초승달이 떠 있었다  
달 저편에 내가 두고 온 세계가 환히 보였다

그후로 초승달을 볼 때마다  
어깨에 가만히 와 얹히는 손 있다

저 맑고 여윈 빛을 보라고  
달 저편에서 말을 건네는 손  
다시 잡을 수 없음으로 아직 따뜻한 손

굽은 손등 말고는 제 몸을 보여주지 않는 초승달처럼  
(나희덕)

###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환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환경주일** :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의 주제는 <생명 밥상 빈그릇>입니다. 예배 중에 <빈그릇 서약식>을 합니다.
2. **재해헌금** : 오늘 예배 중에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자 구호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과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참빛 찬양대** : 매주 1시에 교육관에서 연습했습니다.
4.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사무실에서 1시에 있습니다.
5. **청년부 모임** : 회의를 위한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6. **오후집회** : 환경주일을 맞아 영상물 <공존을 위한 선택, 내셔널 트러스트>를 봅니다.
7. **아트 북 전시회** : 환경부가 준비한 아트 북 전시회가 청년부실에서 열립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8.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9. **심방** : 가정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새교우환영회** : 다음 주일(18일) 예배 후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11. **신앙실천** : 식사는 적게 차리고 남김없이 드십시오. 외식을 줄이십시오. 배가 가난해져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헌화 : 김성자 권사 (박종선 권사 추모)

<새교우 소개>

2621 김일랑 소속: 1 남선교회

2622 임중우 소속: 4 남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